

『幽明錄』 ‘鬼’ 故事를 통해 살펴본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鬼文化*

이 인 경**

국문초록

『幽明錄』 ‘鬼’ 故事에 대한 연구는 六朝時期 사회현실과 鬼文化 및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참 고할만한 의의가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실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鬼 형상과 이들의 세계를 『유명 록』 鬼 고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명록』의 귀신들은 작자에 의해喜怒哀樂의 감정을 느끼는 人 間化된 형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성이 농후하다. 이야기 속 귀신들은 사람과 대치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 인간사회의 조직, 윤리 및 가치관 등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는 인정미 넘치는 鬼 형상과 이들의 이야기에는 당시 사회풍조와 鬼 文化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男尊女卑와 혈통을 중시했던 봉건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鬼 고사에 다양하게 투사되어 이야기의 현실감을 높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動亂시절 참담했던 사회현실과 백성들의 고통 및 당시에 유행했던 불량한 사회풍조 등은 鬼 형상을 통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록』의 鬼 고사에는 육조시기의 사회현실과 당시 사람들의 가 치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鬼 故事, 鬼文化, 人間化, 현실성, 幽明錄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鬼’ 故事에 반영된 사회풍조와 鬼文化 |
| II. 六朝時期 鬼文化和 ‘鬼’ 故事의 성행 | IV. 나오는 글 |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2018년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renjing999@naver.com

I. 들어가는 글

鬼文化는 중국역사문화에 있어 그 연원이 깊을 뿐 아니라 鬼 형상 또한 중국 전통문화에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온 특별한 문학 형상이다. 六朝時期 ‘鬼’는 “귀신을 떠벌려 靈異한 것을 이야기”했던 당시 사회풍조의 영향으로 志怪小說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¹⁾ 鬼를 주된 묘사대상으로 삼은 『列異傳』, 『靈鬼志』, 『搜神後記』 등과 같은 지괴소설처럼 당시 대부분의 지괴소설에서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이 시기 鬼 故事가 지괴소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²⁾

劉宋 劉義慶의 『幽明錄』은 『搜神記』와 함께 육조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로, 현실과 초현실적 공간을 넘나드는 기담이 내용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幽明’이라는 書名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명록』에는 다양한 鬼 형상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사회현실과 가치관을 살펴 볼 수 있다.³⁾ 幽明의 두 세계가 연계되고, 사람과 귀신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세계와 귀신세계의 禍福生死 이야기를 위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유명록』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록』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초자연적 힘을 가진 사람을 해치는 공포의 대상 같은 일반적인 鬼 형상과는 달리 실제 사람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어 이야기의 현실성이 농후하다. 『수신기』의 鬼 고사 역시 귀신들을 통해 인간과 인간세계를 지향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실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⁴⁾ 『유명록』은 이보다 현실감과 세속적 정취가 더욱 짙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신화전설과 역사 異聞을 많이 채록한 것이 『수신기』라면 『유명록』은 대부분 현실생활에서의 이상스런 소문이나 기이한 일들을 수집하거나, 晉人의 서적을 중심으로 한 이전시대의 다양한 저작을 채용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명록』에 등장하는 인간과 귀신 형상, 그리고 이들의 상황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다. 평범함 속에 기괴한 면모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 『유명록』 鬼 고사에서 창출된 세상은 낯설지 않고 친근한 것이다. 실제 사람처럼 인간화된 모습으로 묘사된 『유명록』의 다양한 鬼 형상은 곧 육조시기 사람들 모습의 투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와 가치관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鬼 고사는 육조시기에 크게 번성하였다. 이와 관련해 石昌渝는 “鬼 고사는 魏晉시기 지괴소설에서 창출된 것으로 이것은 고대 중국의 귀신관념 발전의 역사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 하였고,⁶⁾ 顧炎武는 “귀신 이야

1)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4쪽. “張皇鬼神, 稱道靈異.”

2) 柳岳梅, 「魏晉南北朝志怪和古代鬼神崇拜」, 『北方論叢』 4, 1998, 70쪽. 六朝時期가 鬼 고사 성행의 시기임을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曹丕의 『列異傳』 50條 중 14여條, 東晉 陶潛의 『搜神後記』 116조 중 3분의 1, 荀氏의 『靈鬼志』 24조 중 9조, 戴祚의 『甄異記』 17조 중 11조에서 鬼 고사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東晉 干寶의 『搜神記』는 총 27卷 중 第4卷에서 鬼 고사를 전적으로 서술했다. 육조시기 劉敬叔의 『異苑』 382조 중 41조, 祖冲之의 『述異記』 90조 중 3분의 1, 劉義慶의 『幽明錄』 265조 중 4분의 1의 내용에서 鬼 고사가 서술되어 있다.

3) 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明錄』, 살림, 2000, 해제부분 20~21쪽 참조. 幽明이란 현상계와 비현상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것은 非人事의 의미로도 해석되어 幽冥이라는 말과 통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李劍國도 『周易·繫辭』에서는 ‘幽明’을 “유형과 무형의 象”으로 풀이하였는데, 이 때 유형은 明, 무형은 幽이니, 이것은 곧 음양의 귀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485쪽).

4) 景聖琪, 「異域人間: <搜神記>의 鬼文化」,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1: 3, 2008, 27쪽.

5) 吳志達, 『中國文言小說史』, 山東: 齊魯書社, 2007, 168쪽 참조.

기는 漢末에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그러니까 鬼 고사는 고대 중국의 鬼文化를 바탕으로 창출된 것으로, 이것의 발전과 성행은 대체로 한말에서 위진 초기라 할 수 있다. 육조시기 지괴소설 성행의 주역이었던 鬼 고사는 귀문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줄곧 이어져왔다. 주로 위진 지괴작품의 내용과 귀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간혹 작품을 분석해 귀문화와 연계한 연구가 이행되기도 하였다.⁸⁾ 『유명록』은 『수신기』와 함께 육조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신기』에 비해 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유명록』은 위진 지괴작품에 비해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전시대 지괴저작의 유풍을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鬼 형상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유명록』 鬼 고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와 귀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가능한 많은 예문을 통해 내용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내용 분석에 앞서 고대 중국의 귀문화와 육조시기 鬼 고사 성행의 배경을 살펴 내용별 분류에 따른 鬼 고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鬼 고사의 발전은 人鬼관계 안에서 줄곧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人鬼 사이의 대립, 사랑, 恩怨에 따른 報應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화된 鬼 형상과 현실세계가 강하게 반영된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서 당시의 사회풍조와 귀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⁹⁾

II. 六朝時期 鬼文化와 ‘鬼’ 故事의 성행

1. 六朝時期的 鬼文化

六朝時期 志怪小説은 중국 古小説의 전형으로, 이것은 중국소설 발전 단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괴소설의 주된 묘사 대상이었던 仙, 鬼, 神, 妖 중 귀신을 제재로 한 鬼 故事는 이 시기에 가장 번성했을 뿐 아니라 그 문학적 성취 또한 가장 높다.¹⁰⁾ 그렇다면 鬼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고대 중국인들의 鬼에 대한 관념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夏道에서는 천명을 존중하고 鬼를 섬기고 神을 공경하며 그것을 경원시 했다.……殷人은 神을 존송해 백성들과 함께 鬼를 받들어 모시며, 鬼를 우선으로 하고 禮는 그 이후에 이행했다.¹¹⁾

6) 石昌渝, 「論魏晉志怪的鬼魅意象」, 『文學遺產』 2, 2003, 15쪽. “鬼話是魏晉志怪的創造, 它反映了中國古代鬼神觀念發展的歷史變化。”

7) 顧炎武, 『日知錄』, 「泰山治鬼」, “鬼論起于漢末.” (廖霞, 「魏晉南北朝志怪小説中“鬼”之論題研究綜述」, 『閩江學刊』 5, 2016, 133쪽 재인용.)

8) 廖霞, 위의 논문, 131~133쪽 참조.

9) 본고에서 제시할 『유명록』 鬼 고사와 관련된 예문 속 귀신은 원문에 대부분 ‘鬼神’이 아니라 ‘鬼’로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의 논문 제목을 ‘귀신 이야기’ 대신 ‘鬼’ 故事라 한 것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문장의 가독성을 위해 ‘鬼’와 ‘귀신’을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10) 吳禮權, 『中國筆記小説史』, 北京: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1997, 38쪽.

이것은 고대 중국인의 귀신 숭배관념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헌 기록에 속한다. “鬼를 섬기고 神을 공경한다.”고 한 것은 鬼와 神을 구분하지 않았던 고대 중국인의 관념과 관계가 있으므로,¹²⁾ 이것은 고대 중국의 鬼文化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에 대한 숭배는 귀신들을 맹신하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사람들은 현실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어떤 모순적 상황이나 고통을 상상으로 가공한 귀신에 기탁해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¹³⁾ 때문에 고대 관념에서 귀신은 畏敬의 대상이었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은 존재였다. 鬼의 의미가 이후 점차 폄하되면서 神과 구분되고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지기는 했어도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 鬼는 여전히 외경의 대상이었다.

古文字 字形을 통해서도 鬼에 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葉舒憲은 鬼의 외형상 특징으로 귀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는 몸보다 큰 머리 모양이 鬼의 자형이므로 이것은 매우 기이하고 추악함을 드러낸 것이라 풀이하였다.¹⁴⁾ 鬼의 甲骨 자형을 “제사의식에서 공포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는 巫師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¹⁵⁾ 그러니까 鬼 자형에는 외경하고 숭배하던 고대 중국인의 귀신관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 鬼에 대한 이미지가 이후 문학작품과 민속신앙에서도 귀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 鬼는 “사람이 죽으면 鬼가 된다. 從人 부분은 鬼頭 모양에 따른 것이다. 鬼의 陰氣가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다.¹⁶⁾ 鬼에 관한 『說文解字』의 풀이는 鬼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미신 사상과 관련된 초기 鬼 형상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해석으로 설명된다.¹⁷⁾

사람이 죽으면 鬼가 된다. 이것은 五代를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¹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죽게 되면 반드시 토로 돌아가기에 이를 일컬어 鬼라 한다.¹⁹⁾

세상 사람들은 죽은 이를 일컬어 鬼라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²⁰⁾

11)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表記」, “夏道尊命, 事鬼敬神而遠之, ……殷人尊神, 率民以事鬼, 先鬼而後禮, ……”

12) 李玲璞·臧克和·劉志基, 『古漢字與中國文化源』,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7, 237쪽 참조. 고대 중국인의 관념에서 鬼와 神은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鬼는 神이고 神은 靈, 靈은 또 魂이기 때문에 魂은 鬼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대 귀신 숭배는 鬼魂에 대한 숭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3) 景聖琪, 앞의 논문, 27쪽 참조.

14) 葉舒憲, 「中國“鬼”的原型」, 『原型與跨文化闡釋』,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02, 237~241쪽. “鬼的外在特徵是頭大于身”, “鬼大頭和鬼奇醜無比的基本形貌特徵”(廖霞, 앞의 논문 137쪽 재인용).

15) <http://www.vividict.com> 「象形字典」, “表示祭祀儀式中頭上戴着恐怖面具的巫師.”

16)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鬼部」, “鬼, 人所歸爲鬼, 從人, 象鬼頭. 鬼陰氣賊害, 從人.”

17)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6, 475쪽. “這是根據後來人們對鬼的迷信認識所作的解說.”

18) 『禮記·祭法』, “人死曰鬼, 此五代之所不變.”

19) 『禮記·祭義』,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20) (漢)王充, 張宗祥 校注, 鄭紹昌 校點, 『論衡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論死」, “世謂死人謂鬼, 有知能害人.”

이처럼 죽은 사람이 鬼가 된다는 생각은 자연현상에 대해 무지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상상과 영혼불멸관념이 어우러진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에 현실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망과 夢境 및 저승세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을 인간 死後 영혼의 형태, 즉 鬼로 인식했던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이처럼 현실세계가 아닌 異域의 존재 鬼를 고대 중국인들은 두려워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은 초기 鬼에 관한 묘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墨子·明鬼』에 등장한 귀신은 秦穆公의 눈앞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을 지닌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었다. 여기에서 진목공은 “새의 몸을 하고, 흰 옷을 걸친 채 검은 모자를 쓰고, 얼굴은 네모진 모습”의 귀신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고 하였는데,²²⁾ 귀신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님에도 그 모습만으로도 진목공은 그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꼈던 것이다. 이처럼 비교적 이른 시기의 鬼에 관한 묘사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던 고대 중국인의 귀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머리 큰 것으로 대변되는 추악하고 두려운 이미지의 초기 鬼 형상은 사회역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육조시기 다양한 형상으로 등장하는 지괴소설 속 鬼 형상에는 당시의 사회풍조와 귀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六朝時期 ‘鬼’ 故事 성행의 배경

계급과 민족, 통치계급 내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六朝時期는 사회정치적 불안정과 경제파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위태롭고 참담하였다. “들판이 어찌 적막할까, 천리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구나.”와 “문을 나서면 보이는 것은 없고, 백골만이 평원을 덮고 있구나.”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²³⁾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백성들은 세금과 노역, 통치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몸소 겪으며 목숨조차 보존하기 힘든 생활을 이어갔고, 文人들은 직면한 형세와 책임 사이에서 빈민과 사상적 방황을 되풀이하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玄學과 淸談을 빌어 한담을 즐기는 생활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대거 등장한 기이한 기록들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풍조와 연관이 있다. 정권교체가 거듭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군주의 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길게 말을 할 수도 이치를 분명히 밝힐 수도 없었던 까닭에 異域의 존재 귀신이 등장하는 기이한 이야기들로 세월을 보내며 그것에 감정을 기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사회 각층에 전파된 佛敎도 종교와 미신 사상을 부채질 해 문인들에 의해 기술된 鬼 고사는 나날이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鬼 고사 성행을 魯迅도 “중국에서는 원래 巫를 믿었다. 秦漢 이래 神仙說이 성행하였고 漢末에는 다시 巫風이 크게 창궐하여 鬼道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 때 小乘佛敎 또한 중국에 유입되어 점차 퍼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을 떠벌려 靈異한 것들을 일컫게 하였으므로, 쯤

21) 李希羅, 「鬼神是人創造的－魏晉南北朝志怪小說鬼神世界初探」,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1990, 66쪽 참조.

22) 李漁叔 註譯, 『墨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5. 「明鬼」, “……鳥身, 素服三色, 面狀正方. 鄭穆公見之, 乃恐懼奔……”

23) https://so.gushiwon.org/mingju/juv_baf30723e1c6.aspx 曹植, 「送應氏」其一, “中野何蕭條, 千里無人煙.”, https://so.gushiwon.org/mingju/juv_baf30723e1c6.aspx 王粲, 「七哀詩」, “出門無所見, 白骨蔽平原.”

으로부터 隋에 이르는 기간에 귀신지괴가 특히 많이 저술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²⁴⁾

육조시기 사회역사의 배경은 사상 발전의 터전이 되었다. 秦漢시기는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기반으로 황제의 뜻에 따라 나라가 운용되었다. 方士를 중심으로 한 神仙사상의 유행은 바로 長生不老와 不死를 추구했던 이 시기 황제들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손에 쥐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기에 도처로 사람을 보내 不死藥을 찾았다. 이로 인해 진한시기 사람들은 신선을 믿으며 成仙을 수행하는 사람 뿐 아니라 불사약을 먹으면 자신들도 장생불로할 수 있다고 믿었다. 死後를 생각하기 보다는 장생불로와 불사를 희망했던 당시의 사회풍조가 바로 이 시기에 鬼 고사가 발전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漢代 儒家사상도 鬼 고사 발전의 장애였다. 유가에서는 怪力亂神을 철저히 폄하하기에 漢代 소설가들은 상상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漢代 神仙小說의 대량 창작은 통치자에 영합해 신선을 좋아하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 동요가 극심했던 육조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최고 권력자인 황제도 장생불로를 누릴 수 없음을 인지하고 求仙의 몽상에서 깨어나 누구나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불교의 번성은 輪回 관념과 인간의 죽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은 현실이기에 사후세계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 시기 지괴소설에 투사되어 鬼 고사가 성행하게 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필연적 죽음과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鬼文化는 魏文帝나 劉義慶을 비롯한 당시 문인작가들을 자극해 이와 관련된 구전이야기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는데 전념케 했기 때문에 이 시기 지괴소설 속 ‘鬼’ 형상은 다채롭고 풍부한 모습으로 창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鬼’ 故事에 반영된 사회풍조와 鬼文化

幽와 明의 세계를 인정하고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도 실재한다고 여겼던 六朝時期 사람들은 異域의 존재 鬼를 더 이상 사람들의 환상 속에만 두지 않고 다양한 형상으로 창출하였다.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의 소망을 기괴한 이야기를 빌어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시기 성행했던 志怪小說의 ‘鬼’ 故事에는 당시의 사회풍조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鬼 고사가 『幽明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귀신들이 다양한 형상으로 등장해 현실세계 사람처럼 느끼고 말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농후하다. 李劍國은 『유명록』 鬼 형상에 대해

24) 魯迅, 앞의 책, 24쪽. “中國本信巫, 秦漢以來, 神仙之說盛行, 漢末又大暢巫風, 而鬼道愈熾; 會小乘佛教亦入中土, 漸見流傳。凡此, 皆張皇鬼神, 稱道靈異, 故自晉訖隋, 特多鬼神志怪之書。”

(유명록의) 鬼들은 하나같이 현실세계 사람의 성격과 감정을 지니고 있어, 人의 鬼化 혹은 鬼의 人間化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이 실재하는 것으로 느꼈던 것이다. 鬼의 성격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그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²⁵⁾ 『유명록』의 鬼 형상들은 작자의 상상력에 의해 실제 사람처럼 각양각색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人의 鬼化 혹은 鬼의 人間化”라 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현실감과 시대감이 강한 鬼 고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면서 人鬼 사이의 이야기에다 변화가 생겼다. 鬼를 일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대립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으로 人鬼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유명록』의 鬼 고사를 다양해진 人鬼관계, 즉 인간의 성격과 감정을 지닌 鬼 형상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서 당시 사회풍조와 鬼文化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 다양해진 人鬼관계

人鬼 사이 대립이 위주가 되었던 先秦·兩漢 시기의 鬼 故事는 발전을 거듭하다 六朝時期에 이르러 그 관계가 집대성되었다.²⁶⁾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鬼는 단순한 畏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과 현실적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志怪小說 속 鬼 형상들은 異域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화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다양한 인귀관계를 가능케 하였다.

(1) 人鬼의 대립

人鬼의 대립에 관한 이야기는 鬼 故事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여기에는 귀신에 대한 畏敬과 그것을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六朝時期에도 사람과 귀신 사이의 대립을 다룬 이야기는 여전히 있었다. 『幽明錄』의 鬼 형상들은 때론 무섭게 등장해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때론 인간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해 人鬼의 대립 양상을 다양화하였다.

관내에는 귀신이 있었는데 키가 3길이 넘었으며, 지붕 위에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으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 귀신은 殷氏가 관내로 들어오자 혼계를 했는데, 그 뒤로 은씨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매번 병풍을 건드리거나 창문을 여닫을 때면 병이 더 심해졌다. 그의 아우인 殷觀도 귀신을 목격했는데 늘 칼을 뽑아들고 은씨 옆에서 귀신과 언쟁을 벌였다.……귀신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더니 은관

25) 李劍國, 앞의 책, 490쪽. “鬼都被賦予了現實中某類人的性格和感情, 是人的鬼化, 或者說是鬼的人化, 因而給人的感覺是真實的。鬼的性格不是單一的, 不是只有猙獰之狀而一味害人, 具有多色彩性。”

26) 王珂, 「論唐前志怪小說中“鬼故事”之演進」, 『文學界·文學評論』, 2011, 91쪽. 여기에서는 鬼 고사 발생과 발전을 구분해 설명하며, 그 발생을 鬼에 관한 묘사나 간단한 이야기가 서술되었던 先秦, 兩漢 시기로 설명했다. 鬼 고사는 육조시기에 비롯되었다고 했던 石昌渝의 의견은 육조 이전의 鬼에 대한 기록들은 이야기라기보다는 鬼 형상에 관한 일반적인 묘사에 가깝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鬼 고사의 시작을 육조시기라 설명한 것이다.

의 입을 마구 때려 피가 나게 했다.²⁷⁾

위 이야기의 귀신은 등장하자마자 殷氏를 병들게 하더니 아우의 신체까지 상해를 입힌다. 위 귀신의 모습은 머리가 몸보다 컸다고 하는 초기 鬼의 형상과는 다르지만 그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하다. 지붕에서 다리를 늘어뜨리면 땅에 닿을 정도인 키가 3길이 넘는다는 귀신 모습 자체가 추악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① 키가 여덟 자가 넘는 사람이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 들어와 침상 밑에 앉았다. 그와 대면하고 곰곰이 쳐다보니까 혀가 무릎까지 늘어져 있었으므로 中書郎은 공포에 떨며 연신 책을 찢어 불을 지폈다.²⁸⁾

② 밤이 되자 어디선가 “천한 백성이 겁도 없이 감히 화를 자초하는고?”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陳仙 앞에 가까이 다가와 호되게 질책했다. “네 놈이 감히 관사에 침입하더니!”……상대방은 얼굴에 검정 사마귀가 심하게 나 있었고 눈동자가 없었으며 입술은 말려 올라가서 이가 다 드러났는데 손에는 누런 밧줄을 들고 있었다.……“옛날부터 그곳에는 악귀가 살고 있었다.”라고 마을 노인들이 말했다.²⁹⁾

①과 ②의 귀신들도 모두 사람들의 두려움을 유발시킬 만하다. 비정상적으로 큰 키에 신체 일부를 죽 늘여 펴고 있거나 검은 옷차림과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검정사마귀가 가득하여 심하게 추악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②의 귀신은 “눈동자가 없었으며 입술은 말려 올라가서 이가 다 드러났다.”고 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공포영화의 괴물이나 악귀를 연상케 한다. 검은 옷과 모자를 쓰고 등장한 ①의 귀신은 鬼 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등장만으로 사람들을 압도할 만해 中書郎은 귀신을 만난 후 공포에 떨었다고 하였다. 『유명록』의 귀신들이 이처럼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환상이 구체화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귀신에 맞서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다. 귀신을 만난 후 병이 든 은씨의 아우 殷觀은 “칼을 뽑아들고 은씨 옆에서 귀신과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은관은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귀신에게 상해를 입는다. 이 때 귀신에게 당한 은관의 모습은 마치 잘못을 범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은씨를 훈계 한 귀신에게 상해를 입은 은관은 대답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맞서 벌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27) 『幽明錄』의 원문은 “(南朝宋)劉義慶, 鄭晚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을 저본으로 삼고, 이에 대한 번역은 “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明錄』, 살림, 2000.”을 바탕으로 다소 수정하였다. 이후 본문 인용문은 저본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長鬼」, “縣中一鬼, 長三丈餘, 踰上屋, 猶垂脚至地。殷入便來。命之, 每搖屏風, 動窓戶, 病轉甚。其弟觀亦見, 恒拔刀在側與言爭。……鬼忽隱形, 打口流血。”

28) 「鬼吐舌」, “一人有八尺許, 烏衣帽, 持杖坐牀下, 與之熟相視, 吐舌至膝。於是大怖, 裂書爲火。”

29) 「高坟惡鬼」, “至夜, 聞有語聲。『小人無畏, 敢見行災。』便有一人逕到仙前, 叱之曰: 『汝敢輒入官舍!』……見其面上顰深, 目無瞳子, 脣拳齒露, 手執黃絲。……父老云: 『舊有惡鬼。』”

②의 귀신도 陳仙에게 “천한 백성이 겁도 없이 감히 화를 자초하는고?”라며 질책하는 모습으로 人鬼 관계에 있어 귀신이 우월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人鬼의 대립에 있어 우월한 입장으로 서술된 이와 같은 鬼 고사에는 모습에서 비롯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에 맞섰던 사람이 반드시 상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귀신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귀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阮德如가 한번은 뒷간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었다. 한 길이 넘는 키에 시키면 얼굴, 부리부리한 눈에 검은 단의를 걸치고 평상책을 쓰고서 바로 지척 앞에 서 있었다. 완덕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웃으며, “귀신은 가증스럽게 생겼다더니, 과연 그렇군!” 이라고 하자 귀신이 무안해하며 얼굴을 붉히면서 사라졌다.³⁰⁾

阮德如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귀신은 가증스럽게 생겼다더니, 과연 그렇군!”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귀신을 조롱한 것이다. 귀신은 비정상적인 큰 키, 검은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에 검은 옷까지 입고 있어 그야말로 무서운 귀신의 전형이지만 완덕여는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니 귀신은 달아나버린 것이다. “얼굴을 붉히며 사라졌다.”고 한 귀신은 비웃음을 당한 어느 한 쪽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는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 모습은 사람과 다르지만 그 행동이나 감정이 사람과 차이가 없기에 완덕여가 만난 귀신은 인간보다 우월한 입장이라 할 수 없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귀신 존재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귀신을 조롱하며 살해까지 한다.

劉道錫과 그의 사촌동생 劉康祖는 어려서부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사촌형 劉興伯은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곤 했지만 논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한번은 京口의 長廣橋 근처에 있는 집 동쪽 변 울타리에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유도석이 우스개소리로 장소를 물어보고 유흥백을 끌고 함께 가보았다. 유도석이 큰 칼을 들고 귀신 벨 준비를 하고 있자 유흥백이 뒤에서 “귀신이 자네를 공격하네!”라고 소리쳤다. 유도석이 귀신이 있다는 곳에 이르기도 전에 방망이로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그는 이튿날이 돼서야 겨우 깨어났고 한 달이 지나서야 건강을 회복했다. 유흥백이 또 “대청 동쪽 뽕나무 위에 아이 모습 귀신이 있는데, 크면 필시 사람을 해칠 것일세.”라고 하자, 유강조가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무 어느 곳에 귀신이 있는지 물었더니 유흥백이 가르쳐주었다. 10여일 후, 달빛이 어둑어둑한 어느 날 저녁 유도석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창으로 귀신이 있다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찌르고 돌아왔다. 이튿날 유흥백이 놀라며 “귀신이 어젯밤에 누군가에게 찔렸군. 죽었는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라고 하자 유강조가 크게 웃었다.³¹⁾

30) 「嘲鬼」, “阮德如嘗於廁見一鬼, 長丈餘, 色黑而眼大, 著阜單衣, 平上幘, 去之呎尺. 德如心安氣定, 笑語之曰: 「人言鬼可憎, 果然!」 鬼赧而退。”

31) 「刺鬼」, “劉道錫與從弟康祖少不信有鬼, 從兄興伯少來見鬼, 但辭論不能相屈. 嘗於京口長廣橋宅東, 云有殺鬼在東籬上. 道錫便問其處, 率興伯俱去, 捉大刀, 欲斫之. 興伯在後喚云: 「鬼擊汝!」 道錫未及鬼處, 便聞如有大杖聲, 道錫因倒地, 經宿乃醒, 一月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 귀신은 외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경을 범하는 것이었다.³²⁾ 그런데 위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귀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劉道錫과 劉康祖는 귀신을 부정하고 劉興伯은 일찍이 귀신을 본적이 있어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말에 유도석은 바로 칼을 준비해 싸움 끝에 귀신을 처치하고, 이후에는 다시 뿔나무 위에 산다는 귀신을 몰래 숨어 있다가 창으로 찔러 죽인다. 유도석이 귀신을 살해한 이유를 “사람들을 해칠 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편의 영웅 이야기에 가깝다. 마을에 등장한 흉악한 괴물이나 사람을 해치는 악귀를 물리친 모습이 마치 위기에 처한 인간이나 집단을 구원했던 영웅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귀신의 흉악한 모습이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신 출몰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 그것들을 제거하는 유도석과 유강조의 모습은 이전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人鬼관계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인간을 두렵게 만들거나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전과 같지만 그 상대에 맞서기 위해 계획까지 세워 살해한 것은 人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惡人에 대응하는 실제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귀신이 두렵지만은 않은 존재이기에 鬼 형상이 이처럼 다채로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 여기에는 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귀신이 더 이상 숭배의 대상만은 아니기에 귀신은 때론 인간의 말에 복종하기도 한다. “귀신을 꾸짖어 불러내서 하인의 형상으로 변하게 한 다음 서울로 가져가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귀신은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되돌아오는 등 그야말로 천 명의 몫을 해냈다.”고 한 「肅霜神」의 이야기에도 人鬼 관계에 대한 당시의 鬼文化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³⁾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 대응할 만한 용기를 얻기도 한다. 때문에 이전의 鬼 고사와는 달리 귀신에 강한 모습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人鬼의 사랑

고대 중국인의 관념에서 鬼란 사람 死後의 영혼이기에 鬼 故事의 귀신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人鬼의 사랑을 서술한 것은 六朝時期 志怪小說의 새로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문학적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³⁴⁾ 주로 女鬼와 일반남성이 등장하는 人鬼의 사랑 이

日都差。興伯復云：「聽事東頭桑樹上有鬼，形尙孺，長必害人。」康祖不信，問在樹高下，指處分明。經十餘日，是月晦夕，道錫逃暗中，以戟刺鬼所住便還，人無知者。明日，興伯早來，忽驚曰：「此鬼昨夜那得人刺之？殆死，都不復動，死亦當不久。」康大笑。”

32) 『墨子·明鬼』, 지금 귀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귀신은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어떤 만일 이런 식으로 천하의 사람을 가르치면 천하 만민은 이내 귀신 존재유무에 대해 커다란 의혹을 갖게 될 것이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다(今執無鬼者曰：「鬼神者固無有。」但慕以爲教誨乎天下，疑天下之衆，使天下之衆皆疑惑乎鬼神有無之別，是以天下亂。) 여기에서는 귀신 존재를 밝히고자 했을 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3) 「肅霜神」, “効之使出，變形如奴。送書京師，朝發暮反，作使當千人之力。”

34) 王珂, 앞의 논문, 91쪽. 鬼 고사 수량 중 人鬼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 것은 당시 남녀 사랑을 제재로 한 이야기 중 여성 仙人과 일반남성, 여성 精怪와 일반남성, 그리고 女鬼와 일반남성의 이야기를 포함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鬼의 의미가 ‘怪’, ‘精’, ‘妖’, ‘靈’, ‘冥’과 융합되어 鬼怪精靈 같은 기이한 형상이 모두 지괴소설의 소재로 활용되던 번성했던 까닭에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모두 鬼 고사로 칭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鬼의 초기 형상에서 비롯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한 육조시기 지괴의 鬼 고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

야기에서 女鬼는 대부분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鐘繇가 “어떤 여인이 자주 나를 찾아오곤 하는데 그 미모가 예사롭지 않다네.”라고 하자, 동료는 “귀신이 틀림없으니 죽여버리게.”라고 했다. 후에 여인이 찾아왔으나 문 밖에 서서 “어찌 저를 죽이려 하시는지요?”라고 묻자, 종요는 은근히 여인을 불러들이고는 “그럴 리가 있겠소?”라고 했다. 하지만 여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작은 상처만을 입혔다. 여인은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 길 어귀까지 새 솜으로 피를 닦으면서 도망갔다.……관속에 한 부인이 마치 살아 있는 듯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흰 명주 적삼을 걸쳤고 붉은 수가 놓인 배자를 입고 있었다.³⁵⁾

鐘繇 앞에 등장한 귀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사롭지 않은 미모의 여성이었다. 위 女鬼의 모습은 이 시기 다른 제재의 지괴소설에 등장한 精怪나 仙人 여성 형상과 유사하다. 劉晨과 阮肇가 만난 선인이나 黃原이 만난 선인 妙音은 하나같이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고”, “귀엽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³⁶⁾ 淳于矜과 常醜奴가 만난 대상도 각각 너구리와 수달이 변한 자색이 빼어난 여성이었다.³⁷⁾ 선인이든 정괴이든 異域의 존재인 여성의 용모가 모두 아름답게 묘사되었듯이 종요가 만난 女鬼 또한 그 미모가 예사롭지 않다. 남녀 사랑에 있어 여성의 모습을 이렇듯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탓이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구애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로 소망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의 사랑과 혼인은 봉건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은 기이한 형상에 자신들의 소망을 기탁한 것이다. 특히 위 이야기에서는 “흰 명주 적삼을 걸쳤고 붉은 수가 놓인 배자를 입고 있었다.”고 관 속의 부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그 모습이 훨씬 친근하고 실재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아름다운 여성 형상으로 묘사된 女鬼는 당시 남성들의 갈망의 표출이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還魂해 그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다.

① 崔茂伯의 딸이 裴氏 집안과 혼약했으나 혼사 날이 되기 전에 갑자기 죽어 버렸다. 이 후 최무백의 딸은 두 되들이 금슬단지를 들고 배씨 집 아들을 찾아가서 침대 앞에 서더니 술 단지를 그에게 선물했다.³⁸⁾

② 馬子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나이가 열여덟 아홉 살쯤 되는 한 여성이 나타나 “소녀는 전임 태수 徐玄方의 딸입니다. 불행히도 일찍 죽어 죽은 지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지금 소녀를 소생시켜주신다면 속세로 돌아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데, 아내로 맞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에 정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35) 「鐘繇」, “云:「常有婦人來, 美麗非凡。」曰:「必是鬼物, 可殺之。」後來, 止戶外, 曰:「何以有相殺意?’」元常曰:「無此。」慙慙呼入, 意亦有不忍, 乃微傷之。便出去, 以新綿拭血, 竟路。……棺中一婦人形體如生, 白練衫。”

36) 「劉晨阮肇」, “資質妙絕”, 「妙音」, “妙音容色婉妙”

37) 「淳于矜」, “美姿容”, 「常醜奴」, “容姿殊美”

38) 「贈罌」, “崔茂伯女結婚裴氏, 期未至, 女暴亡。提一金罌, 受二升許, 徑到裴牀前立, 以罌贈裴。”

라고 했다. 마자가 잠에서 깨 관을 파내 열어보니 꿈속 여성이 이미 되살아나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³⁹⁾

①의 崔茂伯의 딸은 혼인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해 자신의 정혼자인 裴氏 집 아들 앞에 나타난다. 죽은 사람이 다시 눈앞에 등장했으니, 남성은 두렵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해 영혼으로나마 남성 앞에 나타난 女鬼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라 애처롭기까지 하다. ②의 남녀는 원래 부부의 인연이 없었으나, 꿈에 나타나 신체를 하소연 한 女鬼와 그 상황을 이해한 남성의 행동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꿈이든 실제이든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위 女鬼들의 형상은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①과 ②의 女鬼 형상은 모두 사랑 앞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다. 龐阿를 보고 한 눈에 반한 石氏 딸의 이야기는 환혼 유형 鬼 고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龐阿는 외모가 준수하고 태도가 의젓한 사람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石氏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 안에서 그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다. 얼마 후 방아는 석씨 딸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게 되었다. 방아 치는 질투가 매우 심한 여인이어서 이 사실을 듣고 여종을 시켜 석씨 딸을 결박해 그녀 집으로 끌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도중에 석씨 딸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방아 치는 경계를 더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석씨 딸이 방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직접 그녀를 잡아 석씨 집으로 끌고 갔다. 석씨가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방금 내가 안채에서 나왔을 때에도 내 딸은 어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지금 이곳에 있단 말입니까?”라 하며 종들을 시켜 딸을 불러오게 하니, 묶여있던 딸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석씨는 이것은 필시 무슨 연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딸에게 따져 물어볼 것을 아내에게 시켰다. “예전 방아님이 대청에 앉아 계실 때 소녀가 몰래 훔쳐본 적이 있었지요. 그 후로 그 분을 뵈러 꿈속에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 댁에 들어가다가 그 분 처에게 결박당한 것 같아요.”라고 석씨 딸은 대답했다. 석씨는 “어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나! 진정 사모하여 혼령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 사라진 것도 혼령일 것이야!” 라며 탄식했다. 이 후로 석씨 딸은 다른 이에게는 시집가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듬해 방아 치가 몸쓸 병에 걸려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어 죽자, 방아가 석씨 집에 납폐를 보내 석씨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⁴⁰⁾

석씨 딸은 왜 신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으로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성 앞에 나타난 것일까? 사랑하게 된

39) 「生死姻緣」, “馬子, 夢一女人, 年十八九歲, 言: 「我乃前太守徐玄方之女, 不幸早亡, 亡來四年, ……今聽我更生, 還爲君妻. 能見聘否?」 馬子掘開棺視之, 其女已活, 遂爲夫婦.”

40) 「龐阿」, “有龐阿者, 美容儀. 同郡石氏有女, 曾內睹阿, 必悅之. 未幾, 阿見此女來詣阿. 阿妻極妬, 聞之, 使婢縛之, 送還石家, 中路遂化爲煙氣而滅. ……阿婦自是常加意伺察之, 居一夜, 方值女在齋中, 乃自拘執, 以詣石氏, 石氏父見之愕眙, 曰: 「我適從內來, 見女與母共作, 何得在此?」 即令婢僕於內喚女出, 向所縛者奄然滅焉. 父疑有異, 故遣其母詰之. 女曰: 「昔年龐阿來廳中, 曾竊視之. 自爾彷彿即夢詣阿, 及入戶即爲妻所縛.」 石曰: 「天下遂有如此奇事! 夫精情所感, 靈神爲之冥者, 滅者蓋其魂神也.」 即而女誓心不嫁. 經年, 阿妻忽得邪病, 醫藥無徵, 阿乃授髻石氏女爲妻.”

대상이 이미 결혼한 남성이었기에 그녀는 영혼의 모습으로 구애할 수밖에 없었다. 방아와 석씨 딸의 관계를 당시 사회적 상황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두 남녀는 절대로 정식적인 부부가 될 수 없다. 방아를 사랑하여 혼인한다고 해도 그 신분은 첩일 뿐 정실부인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씨 딸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성 앞에서 구애하며, 방아의 처에게 결박당해 끌려갈 지라도 그녀는 어김없이 방아를 만나러 갔다. 석씨 딸의 이와 같은 절절한 마음이 몸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줄기 연기가 되어”, “뭍여있던 딸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는 모두 영혼이 몸을 떠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은 ①과 ②의 鬼 형상과는 다르지만 그보다 더 신기한 형상으로 모습이 묘사되었다. 부모의 주선 하에 증매로 맺어지던 당시의 혼인풍습을 고려한다면 석씨 딸의 행동은 대담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사랑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신체를 떠나 혼령으로나마 상대를 만나 구애하고자 하는 석씨 딸의 행동은 혼인풍습에는 상반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을 갈망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¹⁾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도 자신의 사랑을 위해 환혼하기도 한다. 분 팔던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한 부잣집 청년은 구애에 성공해 그녀를 만나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된다. 죽은 아들 방에서 분을 발견한 청년의 어머니는 분파는 여성을 아들의 살인범으로 지목해 관아에 고소했더니, 그녀는 죽은 청년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였다.

여자는 “소녀가 어찌 더 이상 목숨을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죽기 전에 시신 앞에 가 실컷 울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현령이 허락했다. 여인은 바로 청년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며 “불행히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만약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면 죽는다고 해도 무슨 원망을 하겠는지요?”라고 하였더니 청년이 갑자기 눈을 활짝 뜨며 다시 살아났다. 청년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모두 설명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자손을 많이 두었다.⁴²⁾

위 분파는 여성은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 모습에 속한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억울함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을 사랑했던 남성의 시신 앞에서 마지막 통곡을 한다.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실컷 울며 자신의 신세를 호소할 뿐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다. 영혼으로나마 상대를 보고 싶었던 탓인지 여성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은 남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더니, 남성은 환혼하여 행복한 결실을 맺는다. 분파는 여성과 청년은 신분차이라는 사랑의 장애 요소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환혼의 형태를 빌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 이야기는 사랑의 위기를 남성의 환혼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할 수 있다. 당시 지괴소설의 사랑 이야기는 여성이 주동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청년은 여성을 배신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위해 희생하며 변함

41) ‘離魂’은 사후 영혼이 돌아오는 ‘還魂’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떠난 영혼은 모두 鬼의 형상으로, 이것은 고대중국의 鬼文化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환혼과 관련된 鬼 고사로 살펴본 것이다.

42) 「賣胡粉女」, “女曰:「妾豈復慼死? 乞一臨尸盡哀!」縣令許焉。徑往撫之慼哭, 曰:「不幸致此, 若死魂而靈, 復何恨哉?」男豁然更生, 具說情狀, 遂爲夫婦, 子孫繁茂。”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위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鬼의 형상과 이와 관련된 비현실적 공간, 즉 환혼의 장치를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명록』 人鬼의 사랑 이야기에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 뿐 아니라 봉건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人鬼의 報恩과 報復, 그리고 鬼의 도움

人鬼의 報恩과 報復은 六朝時期 鬼 故事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이 시기 輪回와 因果應報 관념은 불교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각 계층으로 전파되면서 志怪小說의 鬼 고사 성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鬼의 보은과 보복은 불교의 報應 관념이 더해지면서 이 시기 鬼 고사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귀신은 生前이든 死後이든 인간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에 보답을 한다.

① 尋陽의 한 參軍이 어느 날 꿈속에서 어떤 부인이 자기 앞에 와 무릎을 꿇으며 “저는 원래 물가에 매장되었던 까닭에 시신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를 구해주신다면 비록 부귀하게는 못해드려도 禍를 감하거나 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참군이 물었다. “무엇이 당신 무덤이라는 표시요?” 부인이 대답하기를 “물고기 모양으로 된 비녀가 놓여있는 곳이 제 무덤입니다.”라고 했다. 참군이 이튿날 아침 찾아 가 보니 과연 무너진 무덤이 있고 그 위에 비녀가 놓여 있었으므로 무덤을 높고 마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 10여 일이 지난 후 참군이 東橋로 가는데 소가 물가로 달려 거의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소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⁴³⁾

② 周敬이 오이를 파종한 시기는 마침 가뭄이 크게 진 때였다.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 제기에 물을 담아 와 오이 밭에 물을 부어주었더니 오이가 크게 잘 자랐다. 주경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일찍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지를 묻자, 아버지께서 대답하셨다. “성 밖 서쪽에 사는 樊營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군의 관리로 있을 때 관아에 수백 휘의 쌀을 갚아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쌀 100휘를 보내준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⁴⁴⁾

①의 부인은 女鬼다. 자신의 몸은 이미 죽었지만 사후의 삶이 편안하지 않아 참군의 꿈속에 나타나 이장을

43) 「移坟」, “尋陽參軍夢一婦人前跪, 自稱: 「先葬近水淹沒, 誠能見救, 雖不能富貴, 可令君薄免禍。」參軍答曰: 「何以爲志?」婦人曰: 「君見渚邊上有魚釵卽我也。」參軍明旦覓, 果見一毀墳, 其上有釵。移置高燥處。欲十餘日, 參軍行至東橋, 牛奔, 直趣水, 垂墮忽轉, 正得無恙也。”

44) 「鬼償債」, “周敬種瓜時亢旱, 鬼爲澆水澆瓜, 瓜大滋繁。問姓名不答。還白父, 嘗有惠於人否? 父曰: 「西郭樊營, 先作郡吏, 償官數百斛米, 我時以百斛助之, 其人已死。」”

부탁한 것이다. 참군은 꿈속이긴 하지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치 그 모습이 역울한 이의 하소연을 듣고 해결해주는 자상한 판관 같다. ①에서 귀신은 무덤을 옮겨 준 은혜에 참군의 생명을 구해주는 보답을 하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간적이다. 부탁을 할 때는 무릎까지 꿇으며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전하고, 은혜를 입은 후에는 이에 보답하는 모습이 人情味 넘치는 사람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②의 귀신도 생전에 입었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말 한 마디 없이 조용히 오이 밭에 물을 준다. 귀신의 이름은 樊營, 그는 생전에 周敬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사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오이 밭에 나타난 것이다. ①에서처럼 생명을 구해준 것은 아니지만 가뭄이 든 밭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인의 아들을 도와준 마음이 한없이 따뜻하다.

②의 귀신이 은인의 자식까지 도왔다고 한다면 이미 고인이 된 아버 귀신이 아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도 한다. 姚牛의 아버지는 同鄕사람에게 살해를 당한다. 우연히 관아 앞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칼로 베어 죽여 버리고 만다. 현령은 요우를 살인죄로 잡아들였으나 아버지에 대한 효행을 동정하며 그를 특사로 풀어준다. 어느 날 현령이 사슴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인 한 명이 나타나 현령의 말을 지팡이로 때리는 바람에 사슴을 놓쳐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현령이 노인에게 화살을 쏘려하자 노인은 말했다.

③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현령께서 떨어질까 걱정했을 뿐입니다.” 현령이 “그대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노인이 꿇어앉으며, “소인은 요우의 아버지인데 나리께서 일전에 요우를 살려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사라졌다.⁴⁵⁾

노인은 자신은 비록 역울하게 죽었지만 영혼으로나마 자식 곁을 맴돌며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귀신이 되어서도 못한 자식을 도와준 현령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노인의 행동은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죄 값을 다할 때까지 자식 곁을 지키는 우리네 부모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신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남겨진 자식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자식의 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노인의 마음은 귀신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③의 이야기에서는 노인의 아들이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가벼운 징벌만을 받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어 勸善懲惡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 아들이 면죄부를 받게 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효행을 동정하여 그를 특사로 풀어준다.”는 현령의 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⁴⁶⁾ 『論語·學而』에서 “父兄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仁의 근본이다.”라고 했듯이,⁴⁷⁾ 봉건사회 전통사상의 핵심이 ‘孝’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 이야기의 노인과 아들은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부자관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귀신 신분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노인과 효를 다하고자 했던 아들의 모습이 현실세계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은 鬼 형상이 완전히 인간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鬼 고사임에도

45) 「姚翁」, “「此中有葬, 恐君墮耳!」 令曰: 「汝爲何人?」 翁爲跪曰: 「民, 姚牛父也。感君活牛, 故來謝恩。」 因滅不見。令身感冥事。”

46) 「姚翁」, “深矜孝節, 爲推遷其事, 會赦得免。”

47) 李學勤 主編,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歟!”

전혀 낯설지가 않다.

③의 노인 뿐 아니라 ①과 ②에 등장한 귀신들도 모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입은 은혜에 갓가지 방식으로 보답한다. 때문에 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人鬼들은 이승과 저승으로 서로가 속한 공간은 다를지라도 상호간의 입장이 거의 동등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들의 이야기를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은혜 갚는 귀신이 있다면 이에 반대되는 인간에게 보복하는 귀신도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주로 옳지 못한 일이나 不敬에 대한 징벌의 분위기가 강하다.

㉠ 馮貴人은 後漢 桓帝 때의 貴人으로 절세미인이었다.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다음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쳤는데, 귀인의 모습이 예전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투어 욕을 보이려고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⁴⁸⁾

㉡ 이웃의 아낙네 楊氏가 無患의 시체를 발견하고 머리를 잘라서 文欣에게 가져오자 문흔이 그것을 태워서 가족과 살을 벗겨 내려고 했다. 그러나 문흔이 사흘 낮과 밤을 태워도 머리는 그을려지지 않을뿐더러 눈을 뜨고 눈알까지 굴러댔으므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버리지는 못하고 뺨 밑의 뼈를 깎아 어머니가 복용토록 했다. 그러자 뼈가 목에 걸린 듯 7일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얼마 후 양씨도 병을 얻어 온 몸이 크게 부어올라 마치 소나 말처럼 보였다. 무환의 머리가 나타나 욕하기를 “선악의 응보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라고 했다.⁴⁹⁾

㉠과 ㉡의 이야기는 모두 귀신에 대한 不敬한 행동이 보복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鬼가 된다.”고 했으니 사후 사람의 몸은 죽어도 영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닐진대 이미 죽은 신체를 훼손하였으니 이것은 분명 귀신에 대한 불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경우는 특히 여성을 욕보이고자 하는 남성의 악행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귀신에 대한 단순한 불경이라기보다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報應이라 할 수 있다. ㉡의 귀신 無患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고자 한 사람들에게 더욱 잔인하게 보복을 한다. 文欣은 어머니의 병은 해골을 갈아 마셔야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 해 시신을 하나 구했다. 약을 만들기 위해 시신의 가족과 살을 벗기고 사흘 낮밤을 태워도 머리는 그을려지지 않아 뺨 밑의 뼈를 깎아 어머니께 드렸으나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은 아버지를 생각하던 ㉢의 아들과 같지만 ㉡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불경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과 ㉢이 모두 부모를 위한 효행에서 비롯된 갈등과 원한이지만, ㉡은 人鬼사이의 원한인 반면 ㉢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원한이기 때문에 因果관계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의 귀신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고자 했던 문흔과 楊氏에게 무서운 죄 값을 치르게 하였다. “눈을 뜨고 눈

48) 「馮貴人」, “馮貴, 前漢漢桓帝貴人也。美艷絕雙。死後卅餘年, 群賊發其塚, 見貴人顏色如故, 賊遂競奸之, 鬪爭相煞而死。”

49) 「無患」, “有隣婦楊氏見無患尸, 因斷頭與欣, 欣燒之, 欲去皮肉, 經三日夜不焦, 眼角張轉, 欣雖異之, 猶惜不棄, 因刮耳頰骨與母服之, 卽覺骨停喉中, 經七日而卒。尋而楊氏得疾, 通身浮腫, 形如牛馬。見無患頭來罵云: 「善惡之報, 其能免乎?」”

알까지 굴리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어머니와 양씨의 목숨을 가차 없이 빼앗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귀신에게 저지른 不敬에 대한 보복은 人鬼간 징벌 이야기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고대 중국의 귀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시대에는 귀신의 인간에 대한 징벌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육조시기 鬼 고사는 권선징악에 응보적 요소가 더해져 징벌보다는 恩怨과 악행으로 인한 죄 값의 형태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어 이야기의 현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귀신은 은원과는 관계없이 사람을 돕는 경우도 있다. 馬仲叔과 王志都是 사이가 돈독한 친구였는데, 마중숙이 그만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왕지도를 걱정하던 마중숙은 이듬해 왕지도 앞에 홀연히 나타나 자신이 규수를 보낼 예정이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동짓달 스무 날에 자네 집으로 규수를 보낼 터이니 집안을 청소한 뒤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게나.”라고 馬仲叔이 말했다. 때가 되자 王志都是 남몰래 청소하고 침구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대낮인데도 컴컴해졌다. 바람은 저녁이 되어서야 멈췄는데 침실 안에 갑자기 붉은 휘장이 나타났다. 왕지도가 헤쳐 보니 침대 위에 한 규수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누워 있었는데 가냘픈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규수가 잠시 후에 깨어나 앉자 그가 물었다. “누구신지요?” 규수가 이에 답했다. “저는 河南사람이고, 부친께서는 淸河태수이십니다. 혼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왕지도가 사정을 모두 말하자 규수는 “하늘이 제게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하시군요요.”라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⁵⁰⁾

죽어서도 아직 혼인하지 못한 친구를 걱정하며 배필을 직접 찾아 중매인이 된 마중숙의 모습은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미가 가득하다. 친구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주는 모습이 마치 자식의 혼인을 주선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왕지도의 침실까지 오게 된 아리따운 淸河태수의 딸은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흔쾌히 혼인을 받아들인다.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인연을 왕지도와 여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귀신의 중매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생전에 친구 관계였던 인연으로 사후에도 친구를 걱정하며 도와주는 마중숙의 모습은 귀신이긴 보다는 사람에 가깝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배필을 만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마중숙과 같은 인정미가 가득한 鬼 형상을 빌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권선징악을 장려하던 고대 중국의 문화와 폭넓게 전파된 불교사상의 영향으로 人鬼의 보은과 보복의 이야기는 육조시기 지괴소설 鬼 고사에서 더욱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특히 ①, ②, ③의 귀신들이나 마중숙과 같은 鬼 형상들은 대부분 사람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어 현실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人鬼 사이를 동일한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어 이들의 이야기는 친근감이 느껴진다. 따라서 인정미와 현실성이 농후해진 鬼 형상은 『유명록』 鬼 고사의 인귀관계를 다양하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0) 「鬼媒」, “「……期至十一月二十日送詣卿家, 但埽除、設牀席待之。」至日, 都密埽除設施, 天忽大風, 白日晝昏。向暮風止, 寢室中忽有紅帳自施, 發視其中, 牀上有一婦, 花媚莊嚴, 臥牀上, 才能氣息。……須臾更蘇, 起坐。都問: 「卿是誰?」 婦曰: 「我河南人。父爲淸河太守。臨當見嫁, 不知何由忽然在此?」 都具語其意。婦曰: 「天應令我爲君妻。」遂成夫婦。”

2. ‘鬼’ 故事의 현실적 묘사

“귀신을 떠벌려 靈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 여겨졌던 六朝時期 志怪小説은 사실 현실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작자는 기괴한 형상을 빌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정치 상황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幽明錄』의 鬼 형상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 이야기의 현실감을 한층 상승시켰다. 귀신을 현실세계 인간과 대치적 관계에 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의 세계에는 인간사회의 조직, 윤리 및 思維형식 등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¹⁾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활하는 人情味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鬼 형상과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와 鬼文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화된 ‘鬼’ 형상

『幽明錄』의 ‘鬼’ 형상들은 단일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성향으로 창출되었다. 작자의 상상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된 귀신들은 실제 사람처럼 의식주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七情六欲 같은 감정도 지니고 있어 마치 현실세계의 사람을 대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다음 이야기의 귀신은 개구쟁이 어린 아이처럼 사람 놀리는 것을 좋아한다.

문 앞에서 6·7세 정도의 아이 셋이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옷이 젖지 않아 劉儵은 그들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은 갑자기 단지 하나를 두고 다투었는데 유준이 활을 쏘아 단지를 맞히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유준이 단지를 얻어 문설주 옆에 걸어두었는데 이튿날 어떤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단지를 잡고 울었다. 유준이 까닭을 물으니 부인은 “이것은 제 아이의 물건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유준이 사실을 모두 얘기하자 부인은 단지를 가져가 아이 무덤 앞에 묻어주었다. 하루가 지나자 이전의 한 아이가 단지를 들고 문가에 와서 그것을 들어 보이더니 유준을 향해 빙긋이 웃으며 “제가 다시 단지를 얻게 되었어요.”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⁵²⁾

장난치며 단지 하나를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귀신의 모습이 그야말로 6·7세 아이의 모습 그대로이다. 단지를 갖기 위해 애를 쓰던 한 아이가 단지를 되돌려 받은 후 “제가 다시 단지를 얻게 되었어요.”라고 劉儵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 또한 해맑은 어린 아이의 행동답다. 위의 세 아이들은 사실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읽다보면 그들이 귀신임을 잊게 된다. 현실세계 아이처럼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 전혀 낯설지가 않기 때문이다.

사람처럼 귀신도 배가 고프고 생활할 거처를 구하기도 한다. 「新鬼覓食」에서 신참귀신은 배가 고파 “몸이

51) 俞汝捷, 『幻想和寄託的國度』, 臺北: 淑馨出版社, 1991, 76쪽 참조.

52) 「小兒爭壺」, “門前三小兒, 皆可六七歲, 相率狡獪, 而並不沾濡。儵疑非人。俄見共爭一瓠壺子, 儵引彈之, 正中壺, 霍然不見。儵得壺, 因掛閣邊。明日, 有一婦人入門, 執壺而泣。儵問之。對曰: 「此是吾兒物, 不知何由在此?’」 儵具語所以。婦持壺埋兒墓前。問一日, 又見向小兒持來門側, 舉之, 笑語儵曰: 「阿儵已復得壺矣!」 言終而隱。”

여위고 피곤해” 보인 것에 반해, 죽은 지 이미 20년이 된 친구 귀신은 “살찌고 건강해 보였다.”고 하였다.⁵³⁾ 친구 귀신에게 사람들에게 음식 얻어내는 방법을 듣고 동쪽 방향의 한 집에 들어간 신참귀신은 사람처럼 맷돌질을 했으나 음식을 얻지 못했다. 신참귀신은 다시 서쪽 방향 한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는 디딜방아를 찼지만 역시 음식을 얻지 못했다. 일을 한 탓에 몸은 피곤한데도 먹을 것을 전혀 얻지 못한 신참귀신은 화가 나 친구귀신에게 따져 물었다.

저물녘에 돌아온 귀신은 친구귀신에게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나는 자네 친척으로 남다른 관계이거늘 어찌 나를 속였는가? 이를 동안 사람을 도와주고도 음식 한 사발 얻어먹지 못했어.” 친구귀신이 대답했다. “자네가 운수가 나쁜 탓이야. 그 두 집은 부처님을 모시는 집이니 당연히 귀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지. 이번에는 보통 집을 찾아가 놀라게 해보게나. 틀림없이 음식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니.” 귀신이 다시 한 집을 찾아갔다.……뜰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개가 있기에 개를 안고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자 집 식구들이 보고 깜짝 놀라 여태껏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 봤다고 떠들어댔다. 무당이 점을 쳐보더니 “객귀가 음식을 찾아 해매니 개를 잡고 맛있는 과일과 음식, 술을 마당에 차려놓고 제사 드리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무당의 말을 따랐으므로 귀신은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 뒤로 항상 괴이한 짓을 했다.⁵⁴⁾

음식 얻는 방법을 들은 신참귀신은 동쪽과 서쪽의 두 집에 가 맷돌질과 디딜방아를 찼지만 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노동만 하고 음식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 친구귀신은 “두 집은 부처님을 모시는 집이니 당연히 귀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었다. 배고파 화를 내며 친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신참귀신의 모습은 전혀 귀신같지 않다. 귀신들의 대화에도 등장하는 부처는 당시 크게 번성했던 불교의 영향이다. 인간과 귀신, 그리고 부처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육조시기 불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사람처럼 부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잘못을 저지른 듯 부처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어, 위 이야기의 귀신들은 무섭기보다는 친근하게 느껴진다. 배고플 일 없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 살찌고 건강한 모습의 친구귀신과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 피곤하고 여윈 모습의 신참귀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실세계 사람들의 판박이다. 위 이야기에서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화내며 짜증내는 鬼의 형상은 이미 인간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한 貴人이 죽은 다음 永興현령 王奉先의 꿈에 나타나 생전 모습 그대로 그를 대했다. 왕봉선이 “아직도 정욕이 남아 있습니까?”라고 묻자 귀인은 그에게 아무 날 자기 집에 찾아가 여종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잠에서 깨어 귀인의 집에 가 여종에게 묻자 여종은 그에게 “그날 악몽에 시달렸는데 낭군이 오신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말했다.⁵⁵⁾

53) 「新鬼覓食」, “形疲瘦頓”, “肥健”

54) 「新鬼覓食」, “鬼暮歸, 大怒曰: 「吾自與卿爲婚媾, 非他比, 如何見欺? 二日助人, 不得一甌飲食。」友鬼云: 「鄉自不偶耳! 此二家奉佛事道, 情自難動。今去可見, 百姓家作怪, 則無不得。」鬼復去, 得一家, ……至庭中, 有一白狗, 便抱令空中行, 其家見之大驚, 言「自來未有此怪!」占云: 「有客索食, 可殺狗, 并甘果酒飯, 於庭中祀之, 可得無他。」其家如師言, 鬼果得大食。此後恒作怪。”

② 呂順은 아내가 죽자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후처로 맞았기 때문에 무덤 3기를 미리 만들어놓으려 했으나 무덤을 거의 다 쌓은 듯 하면 봉분이 무너져 내려서 완성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느 날 대낮에 누워 있다가 망치가 온 것을 보고 동침했는데, 망치의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으므로 산자와 죽은 자의 길이 다름을 말하면서 망치를 돌려보냈다. 후에 망치는 사촌 여동생에게 화를 내며 “천하에 남자가 많거늘 어찌 나와 같은 남편을 섬기려 하느냐. 무덤을 완성되지 못한 것이 내가 그리 한 것이다.”라고 했다.⁵⁶⁾

①의 남자 귀신은 사후에도 여성을 찾는 모습으로 자신이 여전히 정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의 여자 귀신은 사후에도 남편을 찾아 가 동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이 맞이한 후처를 투기해 무덤을 무너뜨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①과 ②의 귀신은 모두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②의 귀신은 사후에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촌 여동생에게 화를 내며 “어찌 나와 같은 남편을 섬기려 하느냐”고 꾸짖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죽은 呂順 아내의 말과 행동은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부인의 모습이기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현실세계의 축소판 같은 것이다.

이처럼 『유명록』의 鬼 고사에는 인간화되어 쉽게 친근해지기 쉬운 다양한 鬼 형상들이 창출되어 있어, 현실생활의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전통적 가치관의 투영

六朝時期는 여전히 봉건제도가 지배하던 시대로 이로 인한 사회풍조와 사람들의 가치관은 당시 성행했던 志怪小說 창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대 중국사회에 있어 男尊女卑와 孝는 줄곧 사회를 지배하던 핵심 관념으로, 이와 관련된 제재는 『幽明錄』 鬼 고사에도 반영되어 이야기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① 虞敬이 측간에 갔을 때 갑자기 누군가 문 안으로 손을 불쑥 내밀더니 풀잎을 건네주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직접 본 적이 없었으나 이렇게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루는 측간에 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문 밖에서 다투는 소리만 들리기에 우경이 문틈으로 엿보니 죽은 남종과 여종이 뒤에서 여종이 풀잎을 서로 먼저 주겠다고 다투고 있었다.……잠시 후 우경이 불일을 다 본 후 나가려는데 여전히 종들이 싸우고 있어서 성난 소리로 꾸짖었더니 갑자기 불이 꺼지듯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⁵⁷⁾

② (陳素의 아내가) 이웃집 부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것은 하늘이 원하는

55) 「鬼有情色」, “有貴人亡後, 永興令王奉先夢, 與之相對如平生. 奉先問: 「還有情色乎?」 答云某日至其家問婢. 後覺, 問其婢, 云: 「此日魘, 夢郎君來。」”

56) 「呂順婦」, “呂順喪婦, 更娶妻之從妹. 因作三墓. 構累垂, 輒無成. 一日, 順晝臥, 見其婦來就同衾, 體冷如水. 順以死生之隔語使去. 後婦又見其妹, 怒曰: 「天下男子獨何限, 汝乃與我共一婿. 作冢不成, 我使然也。」”

57) 「虞敬」, “虞敬上厠, 輒有一人授手內草與之, 不觀其形, 如此非一過. 後至厠, 久無送者, 但聞戶外鬬聲. 窺之, 正見死奴與死婢爭先進草. ……食頃, 敬欲出, 婢奴陣勢方未已, 乃厲聲叱之, 奄如火滅. 自是遂絕.”

바요. 하지만 만약 내가 낳은 아이가 딸이고, 자네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두 아이를 바꾸도록 합시다.” 이에 이웃집 부인이 허락했다. 이웃집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진소 아내는 그로부터 사흘 후 딸을 낳아, 두 아이를 서로 바꾸었다. 진소는 매우 기뻐했다. 아이가 13세가 되자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 집에는 평소 귀신을 보던 늙은 하녀가 있어 진소에게 아뢰었다. “어르신 조상님들께서 먼저 들어오시다가 문 앞에서 멈추시더니 들어오지 못하시고, 대신 한 무리의 천한 신분의 사람들만이 자리에 들어와 흠향하더이다.”……이에 진소가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두려워하며 사실대로 말하자 진소는 사내아이를 본가로 돌려보내고 딸을 불러 데려왔다.⁵⁸⁾

①의 남녀 귀신은 한바탕 싸움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다. 측간에 간 虞敬에게 풀잎을 먼저 건네주겠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일을 본 주인에게 풀잎 하나 건네는 것으로 충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유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신이 되었음에도 주인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남녀 하인들의 모습으로부터 그들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貴賤의 차이가 분명했던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鬼 형상을 통해 묘사하고 있어 인상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적 귀천 뿐 아니라 남녀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달랐다. ②의 陳素 아내는 친딸을 촌부의 아들과 맞바꾸었으니 여기에는 남존여비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봉건사회 여성의 소임이었기에 진소 아내는 사전의 계획대로 이웃집 촌부의 아들과 친딸을 맞바꾸었던 것이다. 진소가 바뀌진 자식을 되찾아 온 것은 혈통을 중시하고 신분이 엄격히 구분했던 당시의 봉건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다. 진소의 아들로 키운 자식은 그 집안의 혈통이 아닐 뿐 아니라 신분 또한 낮았기 때문에 조상께 제를 올리는 자리에서 선조 귀신들이 문을 넘어 들어오지 않고 천한 신분의 귀신들만이 자리에 들어 왔다고 한 것이다. 이렇듯 ①과 ②의 鬼 고사에는 남존여비와 신분귀천을 중요시했던 당시의 전통적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효와 관계가 있다. 宗族은 혈연관계로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고대 중국제도의 근본이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종족보존을 위해 자손을 생산해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효의 근본을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胡馥之는 李氏를 아내로 맞은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이씨가 그만 세상을 떠나자 슬프게 통곡하면서 한탄했다. “자식도 남기지 않고 죽다니 어찌 이렇듯 잔인하시오!” 이 소리에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당신이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어요. 제 육신이 한동안 썩지 않을 것이니 날이 어둑해지면 제게 오셔서 평소처럼 잠자리를 하시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낳아드리지요,”라고 말하더니 다시 누워버렸다. 호복지가 아내의 말대로 하긴 했으나 감히 등불을 켜지는 못하고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동침했다. 잠시 후 호복지는 탄식하며 말했다. “죽은 자가 어찌 아이를

58) 「女易男」, “因貨隣婦云: 「我若生男, 天願也; 若是女, 汝是男者, 當交易之。」便共將許, 隣人生男, 此婦後三日生女, 便交取之。素忻喜。養至十三, 當祠祀, 家有老婢, 素見鬼, 云: 「見府君家先人, 來至門首便住。但見一群小人來座所, 食啖此祭。」……素便入問婦, 婦懼, 見說言此事。還男本家, 喚女歸。”

낳을까 싶지만 방 한 칸을 치워서 거기에 아내를 안치해놓고 열 달을 관찰한 후 장례를 치러야겠어.”
……열 달 후 과연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靈産이라 지었다.⁵⁹⁾

혼인 후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당시 여성들의 소임이었기에, 호북지의 아내는 죽어서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남편의 “자식도 남기지 않고 죽다니 어찌 이렇듯 잔인하시오!”라는 탄식 한 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아내의 모습은 그녀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한다. 또 남편에게 동침을 제안하는 주동적인 모습과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낳아 드리지요.”라고 말하는 아내의 언행에는 모두 며느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당시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족보존과 계승을 중시했던 까닭인지 『유명록』의 鬼 고사에는 유독 친족 간의 정을 서술한 이야기가 많다.

東晉 建元 연간 庾崇은 江州에서 익사했으나 그날 바로 집에 돌아왔다. 모습도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대부분 아내 樂氏의 방에 기거했다.……하루는 귀신이 아내에게 호통을 치며 “당신은 살아 있는 자들만 좋아하고 나를 오히려 의심하고 싫어하니 이 어찌 내가 되돌아온 뜻을 알아주는 것이겠소?”……3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미에게 와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자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을 어찌 구하겠니?”라고 말했다. 이에 귀신이 슬퍼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불행히도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굶고 있어 애처롭구나.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200전을 아내 앞에 놓으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이렇듯 한 해가 지났으나 생활은 더 어려워지니 귀신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미 수절을 결심했고 이렇듯 가난하니 내가 빨리 당신을 데려가는 게 낫겠소.” 얼마 있지 않아 아내 악씨가 병으로 죽으니 귀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⁶⁰⁾

위 이야기에서 庾崇은 사후에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 곁을 맴돌고 있다. 생전처럼 아내 방에 기거하며 자신을 멀리하는 아내를 꾸짖기도 하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배를 굶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庾崇의 모습은 현실세계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생활이 힘들어 식구들이 배를 주리는데도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가장의 모습과 나날이 악화되는 살림형편으로 이후의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유송의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들을 걱정하는 유송은 현실세계에 실재하는 가장의 모습 그대로이기에 이들 이야기에는 혈연을 중시하던 고대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당시의 사회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徐羨之」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꿈에 나타나 경고해 자식의 목숨을 살렸고, 「殃殺」에서는 귀신에게 쫓기고 있던 아

59) 「靈産」, “胡腹之娶婦李氏, 十餘年無子而婦卒。哭之慟, 云: 「汝竟無遺體, 怨酷何深!」 婦忽起坐語曰: 「感君痛悼, 我不卽朽; 可人完後見就, 依平生時, 當爲君生一男。」 語畢還臥。腹之如言, 不取燈燭, 暗而就之。復嘆曰: 「亡人亦無生理, 可側屋見置, 須伺滿十月然後殯!」……既及十月, 産一男。男名靈産。”

60) 「庾崇」, “庾崇者, 建元中於江州溺死。爾日卽還家, 見形一如平生。多在妻樂氏室中。……輒悲罵云: 「貪與生者接耳! 反致疑惡, 豈副我歸意邪?」……有一男纔三歲, 就母求食。母曰: 「無錢, 食那可得?」 鬼乃悽愴, 撫其兒頭曰: 「我不幸早世, 令汝窮乏; 愧汝念汝, 情何極也!」 忽見將二百錢置妻前, 云: 「可爲兒買食。」 如此經年, 妻轉貧苦不立。鬼云: 「卿既守節, 而貧苦若此, 直當相迎耳。」 未幾, 妻得疾亡, 鬼乃寂然。”

들을 구하기 위해 어미 귀신이 彭虎子가 몰래 숨어든 독 위 널빤지 위를 깔고 앉아 자식의 목숨을 구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에 현실세계 인간의 혈연간의 정이 『유명록』 鬼 고사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動亂시기의 사회풍조

반복되는 전쟁과 빈번한 정권교체 등으로 야기된 六朝時期의 암울했던 사회정치적 상황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지배계층의 착취와 압박, 매일 이어지는 굶주림 등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시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정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게 하였다. 『幽明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옛 저자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 해골이 땅을 덮었다. 매번 날씨가 갓고 비가 오려 할 때면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가 떠돌아다니는 듯하다.”고 묘사되어 있다.⁶¹⁾ 당시 정황이 상세히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의 고통과 참담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劉宋의 宗室이었던 劉義慶의 생활은 이들과 달랐지만, 그는 일찍이 몇 차례의 전쟁을 직접 겪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었기에 당시 하층민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때문에 육조시기 動亂시절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제재의 이야기가 『유명록』에 서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명록』의 鬼 故事는 특히 당시 사람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풍자가 鬼 형상을 통해 묘사되고 있어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육조시기 사회현실과 당시의 사회풍조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東晉 升平 元年에 任懷仁은 13세 나이로 상서부 書佐가 되었는데, 동향 사람 王祖道 令史로 있으면서 그를 항상 총애했다. 임회인이 15·6세가 되었을 때 왕조를 이상스레 여기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니 왕조가 속으로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嘉興縣에 이르러 그를 살해해 관 속에 넣어 徐祚의 집 뒤에 있는 밭머리에 묻었다. 서조가 밤에 밭에서 잠을 청하다가 문득 그곳에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침, 점심, 저녁때가 되면 음식을 내어 와 제사를 지내주면서 “밭머리 귀신아, 내게 와서 음식을 먹으렴!”이라 하고, 또 해가 저물고 갈 때가 되면 “와서 나와 함께 잠을 자자꾸나.”라고 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늦은 밤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다. “내일 우리 집이 탈상하는 날이라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제사상이 풍성할 것이니 저를 따라가시지요.”……집안은 손님들로 북적렸고 귀신은 서조에게 靈座에 앉으라고 권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음식이 없어졌고, 이를 본 식구들이 슬픔에 젖어 아들의 혼령이 다녀갔다고 통곡했다. 왕조가 들어오자 귀신이 “이 자가 나를 죽인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가 두렵습니다.”라며 도망가니, 서조의 모습이 드러났다.……가족들은 서조를 따라가 관을 옮겨갔고, 관이 옮겨진 뒤로는 귀신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⁶²⁾

61) 「鬼嘯」, “故市經荒亂, 人民餓死, 枯骸填地。每至天陰將雨, 輒聞吟嘯呻嘆聲聒於耳。”

62) 「任懷仁」, “晉升平元年, 任懷仁年十三, 爲臺書佐。鄉里有王祖復爲令史, 恒寵之。懷仁已十五六矣, 頗有異意。祖銜恨, 至嘉興, 殺懷仁, 以棺殯埋於徐祚後田頭。祚夜宿息田上, 忽見有冢, 至朝、中、暮三時, 輒分以祭之。呼云: 「田頭鬼! 來就食。」至瞑眠時, 亦云: 「來伴我宿。」如此積時, 後夜忽見形云: 「我家明當除服作祭, 祭甚豐厚, 君明隨去。」……家大有客, 鬼將祚上靈座, 大食減。合家號泣, 不能自勝, 謂其兒還。見王祖來, 便曰: 「此是殺我人, 猶畏之。」便走出, 祚即形露。……遂隨祚迎喪, 鬼便斷絕。”

『晉書·五行』에 따르면 “太康 연간 이후, 男寵이 기승을 부려 女色보다 그 정도가 심했다. 士大夫 중에는 이와 같은 풍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⁶³⁾ 남충은 당시 유행하던 불량한 사회풍조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위 이야기는 당시 사대부들과 남충에 관한 불량한 사회풍조를 고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宋史 王祖는 나이 어린 任懷仁을 희롱하려다가 순종하지 않자 그를 죽여 버린다. 영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던 임회인이 왕조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主從관계와 地位高下가 분명했던 당시 관료사회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봉건사회의 주종관계에서 종은 주인에게 隸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없어, 굴욕적인 삶을 이어가야 하였다. 육조 시기는 九品中正制로 관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각 문벌 세기들은 등급에 따라 관직이 부여되고, 일반 백성은 관리조차 될 수 없었던 문벌과 신분상 지위고하가 명백히 구분되었던 사회였다. 때문에 관료사회도 주종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속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단직 사람은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회인과 왕조의 이야기에는 공적 일이 아닌 개인의 사사로운 유희조차 뒷사람 의견에 따라야 했던 관료사회의 폐단 뿐 아니라 남충을 즐겼던 당시의 음란한 사회풍조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살생까지 감행한 왕조 같은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어두운 관료사회의 그늘아래에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도,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임회인은 자신을 도와준 徐祚와 식구들 앞에 몸을 드러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저자가 나를 죽인자입니다.”라고 말을 건네면서도 두려워 달아나는 모습은 오히려 임회인의 상황을 동정하게 한다. 현실세계에서는 이조차 불가능했기에 鬼 형상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므로 위 이야기에는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참혹한 현실은 꿈에 나타난 귀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晉 太元 初 符堅이 楊安 장군을 보내 襄陽을 공격하게 했다. 그 무렵 한 군인이 군중에서 사망하자 동향 사람이 관을 메고 귀환했는데 이튿날이면 그 집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망자가 아내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보내진 것은 내 시신이 아니고, 창락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시신이요. 당신이 예전에 땅아 준 머리가 그대로 있을 터이니 들춰보면 곧 식별해낼 것이요.”……부인은 직접 南豐이라는 곳으로 가 남의 시신을 자세히 검사하고 다녔다. 그 중 한 시신이 남편이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틀림없는 자신의 솜씨였다.⁶⁴⁾

太元 연간 襄陽 지역을 사이에 두고 前秦과 東晉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위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전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사회 하층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보내진 것은 내 시신이 아니요.”라는 귀신의 말 한 마디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백성

63) 吳士鑑·劉承幹 同注, 『晉書輯注 一(二十五史)』影印本, 「五行」, “太康之後, 男寵大興, 甚于女色, 士大夫莫不尚之.”

64) 「托夢辨尸」, “晉太元初, 符堅遣將楊安侵襄陽. 其一人於軍中亡, 有同鄉人扶喪歸, 明日應到家. 死者夜與婦夢云: 「所送者非我尸. 倉庫面下是也. 汝昔爲我作結髮猶存, 可解看便知.」……婦自至南豐, 細檢他家尸, 髮如先, 分明是其手迹.”

들의 비통한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전시에 군중에서 집을 그리워하다가 사망 후 영혼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은 잔혹한 현실이 鬼 고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은 죽어서도 변함이 없기에 남편은 자신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장소를 아내의 꿈에 나타나 알려준다. 아내가 찾아 간 南豐의 상황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다. 수많은 시신들 가운데 남편을 찾기란 쉽지 않아 시신을 하나하나 검사해 예전 자신이 해준 머리모양으로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였다. 그야말로 처참한 사회현실과 비통한 심정이 鬼 고사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명록』의 鬼 고사는 動亂으로 얼룩진 잔혹한 사회현실과 봉건사회 이면에 가려진 불량한 사회풍조가 鬼 형상과 이들 세상에 투영되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글

『幽明錄』 ‘鬼’ 故事는 鬼에 대한 고대 미신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누적된 경험과 인식이 더해져 이루어진 六朝時期 志怪小說의 주된 이야기에 속한다. 鬼 형상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현실세계의 변형된 투영이며 투사이기에 그것을 통해 현실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 현실적 의의가 풍부하다. 인간의 기쁨, 고통과 眞情의 투사가 곧 鬼 고사에 반영된 사람들의 심리라 할 수 있으므로, 『유명록』 ‘鬼’ 고사에 대한 연구는 육조시기 사회현실과 鬼文化 및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실세계의 축소판이라 칭할 수 있는 鬼 형상과 그들의 세계를 『유명록』 鬼 고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작자에 의해 『유명록』의 鬼 형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창출되었다. 흉악한 모습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공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생전의 처자식을 걱정하며 잊지 못하기도 한다. 사랑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도움을 준 사람과 자신을 해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報恩과 報復으로 報應하지만, 때로는 혈연이나 가까운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恩怨과 관계없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유명록』의 귀신들은 작자에 의해 喜怒哀樂의 감정을 느끼는 人間化된 형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성이 농후하다.

『유명록』의 귀신들 세계는 현실세계의 축소판이다. 幽와 明의 세계를 인정하고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도 실재한다고 여겼던 육조시기 사람들은 異域의 존재 鬼를 더 이상 환상 속에만 두지 않고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해줄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의 세상은 곧 바로 현실사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처럼 느끼고 말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농후하다. 男尊女卑와 신분의 貴賤 및 宗族 중심주의 같은 봉건사회 전통적 가치관이라든지 불량한 사회풍조와 動亂으로 야기된 처참한 상황이 모두 鬼 고사에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세상은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공간과 전혀 다르지 않다.

劉義慶은 劉宋의 宗室이었으나 직접 몇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하층민들의 비참한 상황과 고통을 목도하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동란시절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제재의 이야기를 묘사할 수 있었다. 특히 『유명록』의 鬼 故事에는 육조시기 사람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풍자, 그리고 그들의 소망까지 인간화 된 다양한 鬼 형상을 통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사회풍조와 鬼文化를 이해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穀衍奎,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6.
- 魯迅 撰, 『中國小說史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南朝宋)劉義慶, 鄭晚晴輯注, 『幽冥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
- 吳士鑑·劉承幹 同注, 『晉書斟注 一(二十五史)』影印本·,
- 吳禮權, 『中國筆記小說史』, 北京: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1997.
- 吳志達, 『中國文言小說史』, 山東: 齊魯書社, 2007.
- (漢)王充, 張宗祥 校注, 鄭紹昌 校點, 『論衡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 俞汝捷, 『幻想和寄託的國度』, 臺北: 淑馨出版社, 1991.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 李漁叔 註譯, 『墨子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5.
- 李玲璞·臧克和·劉志基, 『古漢字與中國文化源』, 歸陽: 貴州人民出版社, 1997.
- 李學勤 主編, 『禮記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李學勤 主編, 『論語注疏(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臧克和 外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 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冥錄』, 살림, 2000.
- 景聖琪, 「異域人間: <搜神記> 的鬼文化」,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1: 3, 2008.
- 廖霞, 「魏晉南北朝志怪小說中“鬼”之論題研究綜述」, 『閩江學刊』 5, 2016.
- 柳岳梅, 「魏晉南北朝志怪和古代鬼神崇拜」, 『北方論叢』 4, 1998.
- 石昌渝, 「論魏晉志怪的鬼魅意象」, 『文學遺產』, 2, 2003.
- 王珂, 「論唐前志怪小說中“鬼故事”之演進」, 『文學界·文學評論』, 2011.
- 李希躍, 「鬼神是人創造的-魏晉南北朝志怪小說鬼神世界初探」,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1990.

<http://www.vividict.com>「象形字典」

https://so.gushiwen.org/mingju/juv_baf30723e1c6.aspx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Society's Tendency and Ghost Culture during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Seen from Old Ghost Story of "You Ming Lu(幽明錄)"

Lee, Inkyung*

Research on old ghost story of "You Ming Lu(幽明錄)" could be worthwhi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society, ghost culture and values of people during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So, this study examined shapes of ghosts and their world that might be called abridgement of the real world by content analysis of old ghost story of "You Ming Lu(幽明錄)". Ghosts in "You Ming Lu(幽明錄)" were created by the authors as personified figures who could feel the emotions of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and so these stories had extremely high sense of reality. It's because the ghosts in the stories, not in conflict with humans, reproduced conventions, ethics and values of actual human society in their stories as were. For this reason, shapes of affectionate ghosts that used to think and live like humans, along with their world, might have mirrored society's tendency then and ghost culture.

Feudalistic values during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which put emphasis on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and ancestry, were diversely reflected on the old ghost stories, enhancing the probability of stories as a result. Apart from this, the authors borrowed the ghosts to accuse of desperate societal reality and people's agony during the conflicts and battles as well as bad societal trends then prevailed. Thus, old ghost story of "You Ming Lu(幽明錄)" could be considered to have reflected the reality of society during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and the values of people then.

[Key Words] ghost story, ghost culture, personified shape, sense of reality, "You Ming Lu(幽明錄)"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